

◆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 <http://www.koreansfo.org> ◆



평화의 도구

(제 144 호)

05년 8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올리아),sfo (714)572-1828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박 영환(빅토리노),sfo (714)638-194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올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91@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hanmail.net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이 현옥(글 라 라): cleesfo@yahoo.co.kr
 *이 종호(마 테 오): k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koreansfo.org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8월 7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불고기 및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 지구 형제회 전체 모임

-일시: 10월 8일 (토) 9:00am-4:00pm
 -장소: Our Lady of Guadalupe Parish Ctr.
 900 W. La Habra Blvd, La Habra
 - 대상: 지구 형제회 전 회원
 - 기타: 점심은 각자 준비함.

■ 형제회 명칭 변경

가든그로브 순교자 성당 신자를 중심으로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에세 분가한 보나벤뚜라 형제회(가칭)가 명칭을 성녀 클라라 형제회(St. Clara Fraternity at Westminster)로 변경하였습니다. 월례회는 매월 2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순교자 성당에서 갖습니다.

■ 성전 건립 기금

성 토마스 성당 새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그라지 세일은 주관자가 없어 계획은 취소되었고 대신 형제회에서 9월부터 3개월간 지역구별로 점심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 북남미 연수회

8월 25-28일(3박 4일) 캐나다 형제회에서 주최하는 북남미 연수회에는 약 150명이 참가하며 이곳에서는 Rock 지구 형제회장을 비롯 저희 형제회에서 10분이 참석합니다.

☞ 사진은 이번 대회 로고이며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캐나다 형제회 준비 위원 들입니다. 캐나다 공항에 도착 하시면 아래 로고를 찾아주세요..



【영 성】

이 글은 한국형제회에 실린 “리포트”입니다

이 시대에 성 프란치스코가 안다면 그가 취할 환경 문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참으로 좋구나’하고 스스로 경탄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가꾸고 보존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 프란치스코는 어린 시절 알프스 산의 끝 자락에 있는 아시시의 아름다운 산들과 풍성한 평원, 그림 같은 일출과 일몰이 시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천상적 아름다움을 보며 자랐다. 어릴 적 느꼈던 그 아름다움들이 하느님을 향하는 끝없는 찬미와 감사를 자아내게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자연을 사랑한 것은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내재해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길이 좁아도 그 주위의 나무나 돌들을 파헤치지 않고 지계를 만들어 지나다니는, 자연에 순응하는 놀라운 지혜를 지녔었다. 또 인디언들은 대자연에서 기운을 얻어 삶에 이용했다. 큰 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 그 나무의 기운을 받았고, 큰 바위 위에 누워서 그 바위의 기운을 받아 활기 차게 생활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자연에 대한 예의이며, 창조주 앞에 가지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나 나무를 잘라 집 안에 가져다 놓고 혼자 즐겨야 하고, 상대(자연)를 죽여서 내가 이용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모습들이 이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느긋하게 있는 그 대로를 즐기지 못하고 안달하는 조급함이, 자연만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참모습까지도 변질시킨다.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거기에서 나의 삶의 원천이 되는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면 결국은 나도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보존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은 주신 것을 가꾸고 보존하기보다는 파괴하고 오염시켰으며 또한 변질시켰다. 과학의 장난으로 뒤섞어 놓은 종(種)들은 종래에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생명 연장이라는 허울 아래 행해지는 해괴한 일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복제 인간, 동물 장기 이식 등으로 자연적인 순환의 법칙을 깨고 있다. 생성이 있으면 각자의 때에 맞는 소멸도 있어야 하는데, 비켜 주기를 너무나 싫어한다. 인위적인 생명 연장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수 백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는 화폐 경제와 상공업의 발달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소유욕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인간의 모습이 변질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들에게 갖들어 있던 순수한 하느님의 모습들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우리는 껍데기만 튼튼한 모습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사람이 원래의 모습 즉 하느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세를 갖기를 강조하셨다. 내가 주인이 아닌,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겸손되이 살기를 말씀하셨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잘 가꾸어 다시 내어 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의 정신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것은 인간과 자연환경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속에 하느님의 선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하느님은 손수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을 넘치지 않게 잘 유지시키시며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순응을 한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유지될 세상을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으로 파헤치고 해집어 놓는다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생태계의 주보성인을 삶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재화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을 통한 환경 친화적 농업을 해야 하며 물을 살려야 한다. 모두가 안되

면 우리들만이라도 부족함 속에서 만족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재화의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며 하느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름답고 건전한 환경과 관계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러시아 선교】

난 그래도 행복한 사람

...우울했었는데..

김용철(도미니코) 신부, ofm

축일날 알게 모르게 좀 우울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축일날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녀님들과 우리 형제들 뿐이었다. 신자들로부터 축일 축하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것보다는 미사에 참석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하루였다.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평일 미사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오늘, 우수리스 본당 창립의 주역이며, 늘 미사에 참석하기를 그리워 하던 마리아 할머니께서 떠나 보내는 장례 미사를 했다. 이제 그나마 미사에 참석하던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이 무척 아팠다. 이곳에 왔을때,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미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미사를 봉헌할 것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이 약해졌던 시간이었다. 분명 하느님께서 마리아 할머니를 당신 품으로 불러가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마리아 할머니의 떠남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본당의 큰 기둥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물론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하늘 나라에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난 행복하다. 한국에 있을 때 함께

했던 나의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일 축하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아르센예프

본당 신부를 떠나면서..

평화와 선

오늘 러시아-카자흐스탄 선교단 책임자 신부와 함께 아르센예프 성당을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성당 건축을 위해 시작한 초석을 다진 기초를 축복하였다. 또한 연 2년간의 본당신부로서 함께 신자들과 웃고 울면서 지냈던 시간을 오늘로써 마감을 하였다.

함께 일하는 존 기본슨 형제가 이제 아르센예프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아르센예프에서 함께 지냈던 신자들의 송별 파티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기억에 남을 행사였다. 매주 300KM를 달려가야 했던 순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미사를 위해 긴 여정의 길을 다녔던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본당 신부가 되기 전에도) 영사기의 필름처럼 스쳐지나 갔다.

이제 좀더 성숙된 본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당 신부가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곳 신자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정들었던 신자들..

물론 내가 그곳의 본당 신부를 그만 두었다고 해서, 그곳의 미사가 가서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 그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지낸 수도회의 존 신부가 정식으로 본당 신부로 임명을 받아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을 뿐이다. 현지의 여건상 본당을 비워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면서 두 본당의 미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난 우수리스크의 본당 신부와 행려자 복지 센터의 건립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아르센예프의 본당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2005년 8월 13일
러시아의 우수리스크에서.

[묵상]

**이중적인 사람은 목적이 강하고
단순한 사람은 과정에 충실합니다.**

사랑의 님이시여!

이중적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남보다 크게 정하나이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현실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며 오늘의 고통보다 내일의 행복만을 추구하나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강하게 재촉하며 오늘의 불완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만을 그리나이다.

이중적인 사람은 과정은 없고 목적만 있나이다. 하오나 님이시여!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과정에만 충실하나이다.

단순한 사람은 과정이 곧 목적이며 목적이 바로 과정이나이다.

무릇 모세혈관이 막히면 존재의 중심인 심장이 압박을 받듯이 단순한 사람은 주어진 오늘의 작은 일과 작은 인간관계에 충실하여 생의 목적인 존재의 완전성에 쉽게 다다른나이다.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잔뿌리부터 자라는 법이나이다.

참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은 오늘을 내일보다 크게 여기고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저 일보다 이 일을 더 중요하게 다루나이다. 마음이 단순한 사람에게는 오늘의 불완전이 내일의 완성보다 더 가치가 있고 자신의 현재의 부족함과 모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앞날의 행복을 계획하기보다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나이다.

이렇듯이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언제나 현재에 머무나이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를 쉽게 용서하며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나이다.

항상 오늘 아파하고 오늘 힘들어 하며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나이다.

오늘 하루 중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으며 오늘 하루만 잘살아도 백년의 가치를 구할 수 있나이다.

인생이란 본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법... 현재에 충실한 자만이 미래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나이다.

진실로 사랑하는 님이시여!

모래성을 쌓았다가 허물고 다시 쌓는 어린이처럼 과정에만 충실한 어른아이 되소서.

부디 오늘 하루 충실하시어 영원한 오늘을 살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 사랑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으소서.

2004. 9. 들꽃마을 최영배 비오 신부 드림

[유머]

건망증의 신비

70대 할머니들의 동창회에서 한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자고 했다.

다른 할머니들이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자 그 할머니는 대표로 교가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동창 할머니들은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

“애는 어려서 공부를 잘 하더니 나이 들어서도 기억력이 좋아”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다.

할아버지 역시 놀라워하며 “다시 불러보라” 고 하자 할머니는 신이 나서 다시 불렀다. 노래를 들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우리 학교 교가와 너무 비슷해”